

관세음보살 사바세계 나투셨네

의겸 이태승 작가 '월인천강전' 5월 23일까지

의겸 이태승 작가(용인대 회화학과 교수)의 '천강에 밝은 달 - 월인천강전(月印千江展)'이 5월 23일까지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30여 년간 불화를 그려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관자재보살도, 월인천강수월관음도, 원왕생도 등 고려불화 기법을 토대로 새로운 불화를 시도했다. 특히 작품에 쓰인 비단은 진주에서 직접 제작했고 천연물감과 천연염료만을 사용해 그렸다.



이태승의 관자재보살도 (02)3673-3426

으로 관세음보살과 십장생 등을 그려 신비로움을 더한다. 그래서 불날 수월관음보살님은 설법을 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모습으로 사바세계에 각

넓은 고무신에 담은 수행의 여정

희상 스님 '넓은 고무신전'



희상 스님(사진)의 '넓은 고무신전(展)'이 6월 18일까지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열린다. (본지 941호 B13면 게재)



넓은 고무신전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의 여정을 상징하는 고무신에서 자라난 무성한 새싹들을 통해 각자 수행자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설치작품이다. 희상 스님은 문운사승가대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

대학에서 수학한 현대미술작가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문운사승가대학 학인들의 고무신 340여쌍이 동원됐다.

정혜숙 기자

서예로 만나는 법정 스님의 법문

맑고 향기롭게 서화전 개최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시민모임(사) '맑고 향기롭게'과 김상사는 5월 22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글' 서화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추사체를 연구하는 서예가 동천 엄기철 선생이 법정 스님의 법문과 저서에서 가져온 말씀을 담은 서화작품 80여점을 선보였다. 엄 씨는 이번

서화전의 판매 수익금을 '맑고 향기롭게'에 기부할 예정이다

법정 스님의 글귀에 맞는 사진을 찾아 4년여 동안 권영오 작가의 작품을 담은 족자도 선보였다. 권 씨는 40여 년간 산골에서 사진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다. 이번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작품 수익금은 '맑고 향기롭게'에 기부, 장학금사업과 결식아동돕기 사업에 쓰인다. (02)741-4696

정혜숙 기자

깨달음으로 이끄는 108 만트라 음반

만트라를 암송하면서 그 뜻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명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오소 라즈니쉬의 제자로 현재 전세계 명상음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데바 프레말과 규토승원 스님들이 염송한 '티베트 만트라 명상음악 앨범'이 발매됐

다.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예불법인 규토승원 스님들의 저음발성 찬팅이 데바 프레말의 신성한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들을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 준다. 현대인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육자대명주' 등 8개의 만트라를 들려준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신이·김주철 DJ로 새로운 변신

뜻뜻한 진행 '주목'

불교방송 '활력 충전 2시4시' 진행자로 맹활약

BBS불교방송 '활력충전2시4시'(이하 활력충전, 담당PD 김상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파를 타는 불교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최근 '활력충전'은 진행자를 영화배우 신이 씨와 개그맨 김주철 씨로 새롭게 영입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5월 15일 '활력충전' 스튜디오를 찾아 새 진행자들과 제작진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담당 김상준 PD는 활력충전이 불교방송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 프로는 낮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만큼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듣고 즐기고 함께 참여하면서, 불자와 비불자를 아우르는 불교방송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행자로 섭외된 영화배우 신이 씨와 개그맨 김주철 씨는 요즘 처음으로 맡은 라디오 진행의 재미에 푹 빠졌다.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일', 영화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에서 개성만점 연기로 사랑받은 신이 씨는 대대로 불자 집안에서 자란 배우다. 특히 영천 인근의 암자를 오가며

신행활동을 펼치는 그녀는 라디오 DJ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진행을 결심했다.

"작가님이 3일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섭외를 했어요. 사실 라디오 진행은 꼭 해보고 싶었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망설였는데 정말 결정을 잘한 거 같아요. 피디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또 제작진 모두

김주철, 천배 기도로 마음 다스려

신이, 방송으로 '힐링'

사랑방 역할로 편안함 주고자

편하게 해주셔서 시작부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신이 씨는 라디오를 진행하며 스스로 힐링하는 기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예청자분들의 사연을 읽으며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해 하면서 저 스스로 힐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기할 때 목소리가 다르다며 제가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 웃기도 하죠.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서



'활력충전2시4시'는 진행자를 영화배우 신이 씨와 개그맨 김주철 씨로 새롭게 영입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사진은 5월 15일 방송 장면.

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 무척 매력적이에요."

개그맨 김주철 씨는 절수행 신행모임인 여여회를 통해 꾸준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108배가 몸에 밴 불자다. 시간이 날 때면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일주일씩 머물며 힐링을 하기도 한다는 그는 불교방송에서의 진행이 매우 편하고 즐겁다고 전했다.

"평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시간이 나면 도선사를 찾아 천 배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지금도 꾸준히 108배와 열불 등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방송이라는 특징 때문에 굳이 뒤러고 하거나 애써 웃기지 않고 제가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방송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앞으로 활력충전을 통해 불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저희 프로는 가요를 위주로 하는 프

로그램이에요. 하지만 불자들이 제작하고 불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불자 연예인들도 이 방송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호흡을 맞추지 1주일 정도 서로 조율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최대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두 진행자는 앞으로 편안하면서도 활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김 피디는 "스님들의 좋은 법문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프로그 '활력 충전'이다. 앞으로 청취자들에게 오후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른한 오후시간을 유쾌하고 정답게 채워줄 활력충전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방송은 불교방송(101.9MHz)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분노조절 '힐링' 전한 정목 스님

부처님오신날 특집 SBS '힐링캠프' 출연

정목 스님은 5월 13일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출연 분노조절 힐링 호흡법 등을 전수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정목 스님은 인도의 쿰바카 호흡법을 소개하며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충분한 양의 숨이 들어가지 않는다. 충분한 숨을 쉬어야 화를 잘 다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목 스님은 "화가 날 때는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 코로만 호흡 해 보라. 오른쪽 코는 태양을 의미하고 왼쪽은 달을 의미한다"며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면 몸이 차가워지며 열기를 빼내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는데 도

움이 된다"고 호흡법을 전수했다. 이어 "이름 붙이기" "반응 없겠다" 등을 접한 시청자와 누리꾼들은 "정목 스님의 분노 다스리기 3종 세트 힐링법을 꼭 해봐야겠다", "정목 스님 힐링캠프는 감동적이고

분노 조절법 '3종 세트' 인기

'유나방송' 세계서 접속 다운

진정한 힐링이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방송에서 스님은 자신의 출가 과정과 노래가 금기된 절에서 노래가 좋아 청소할 때도 노래와 함께했던 이야기도 전해



정목 스님은 5월 13일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출연 '힐링 호흡법, 이름 붙이기, 반응 없겠다' 등 분노다스리는 법을 전수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제공=BBS

관심을 모았다. 재재시 화장실에서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노래할 정도로 스님의 음악 사랑은 극진했다고 한다.

이후 전화 상담 기관에서 봉사하며 세상의 고통을 알게 됐고 세상에 나와 각종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했던 이야기를 전해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방송으로 유나방송은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접속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방송이 다운되는 헤프님이 벌어졌으며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정목 스님이 등장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스님의 트위터도 이틀남짓 폭주 상태였다.

정혜숙 기자

사경지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8,000원(20장 이상) 정가 10,000원
• 종이 케이스포함 / 한지날장
• 75cm×210cm (묵색, 적색)
• 손으로 직접 뜬 전통 재래 한지

★반야심경 탐사경(한문·한글)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한지날장 / 63.6cm×31.3cm

▲일대 (70개입) @90,000원 (3BOX 이상)

▲돈타레 (40개입) @90,000원 (3BOX 이상)

▲원기등 (20개입) @90,000원 (3BOX 이상)

창사 40주년 기념 양초 할인 판매!!

“무료배송”

고급 국내산 양초

중국산 재생초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산 최고급 양초이며 견고한 상자에 포장되어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수입양초는 박스에 Made in Korea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